

500명 촛불 6주만에 15만명…민주주의 축제의 장으로

진화하는 금남로 촛불집회…1~6차 변화상

500명으로 시작한 ‘광주 촛불’이 6주 만에 무려 15만명으로 늘었다. 지난 3일에는 광주 촛불집회 사상 역대 최대 인파가 참여하는 등 참가자가 무려 300배가 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광주 시민의 목소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촛불집회가 열리는 금남로는 시민의 울분을 토해내는 ‘성토장’이자 다양한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축제장’, ‘만남의 장’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광주출정가’ 등 민중가요도 부활했다. 지난 10월29일 이후 시민사회 주도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 6주째 매주 주말 이어진 광주시국촛불대회를 키워드로 정리했다.

◇5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난 1·2차 집회=10월29일 광주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국정 중단 박근혜 퇴진 촉구 광주시민시국대회’에는 시민 500여명이 박 대통령 퇴진 및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을 펼쳤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 의혹이 발단이 돼 각계의 ‘시국선언’이 봇물처럼 터졌다.

지난달 5일 5000여명의 참여 속에 열린 2차 촛불집회에서는 촛불이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각계의 ‘자유발언’이 잇따랐다. 특히 국가폭력에 희생된 보성 농민 고(故) 백남기 선생의 장례와 겹치면서 유모차를 끈 주부, 학생,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모이기 시작했다. 지역 시민사회 등 90여개 단체는 지난달 10일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매주 수,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촛불집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자발적 참여’ 속에 열린 3차 촛불=지난달 12일 촛불집회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됐지만 5000여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지역 시민사회, 노동계, 농민 등 1만여

4차서 전국 첫 햇불 등장

5차 집회에서 시민대행진

출정가 등 민중가요 부활

명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하면서 광주에서 촛불집회를 열만한 원동력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민족예술제를 연 광주민예총이, “시국대회를 열자”는 시민들의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박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촛불’에서 ‘햇불’로 변진 4차 촛불=박 대통령에 분노한 광주 시민들이 36년 만에 햇불을 들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회피하고 일부 여권 인사가 ‘촛불 편향’ 발언을 하자 성난 광주 시민들은 ‘광주 10만 시국촛불’ 대회를 열었고, 모두 8만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광주 시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1980년 5월 광주 대학생과 시민이 신군부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옛 전남도청 분수대에서 햇불을 들고 진행했던 ‘민주대성회’를 재현한 행사를 진행했다. 박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촛불이 햇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였다. 광주에서 최초로 등장한 햇불은 전국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시민 대행진으로 보여준 5차 촛불=지난달 28일 광주 시민 7만명은 비바람과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금남로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시작된 이날 집회는 ‘우리가 주인이다’ ‘박근혜 체포’라고 적힌 대형 걸개그림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로 달아올랐다. 일순간 슬픔에 잠겼던 시민들의 행렬은 돌로 나뉘



“박근혜와 부역자들 감옥으로”

3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제6차 촛불집회’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등 국정농단의 주역과 부역자들을 포승줄에 묶어 감옥에 가두는 ‘하옥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어 금남로 57가까지 행진했다가 금남로 본무대로 돌아오는 ‘시민 대행진’을 펼쳤다.

◇‘15만명’ 역대 금남로 최대 인파 6차 촛불=6주 만에 참가 인원이 15만명으로 늘었다.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를 보고 분노가 극에 달한 인파가 전일빌딩부터 금남공원까지 발디딜 틈 없이 들어찼다. 시민들은 박 대통령 퇴진을 넘어 구속과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처음으로 박 대통령과 함께 최순실, 우병우, 김기춘, 새누리당, 재벌(삼성, SK, 롯데) 등 부역자 처벌 요구와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분배 금지는 정당”

현재, 공무원 헌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공무원들이 개인·부서별로 다르게 받은 성과상여금(성과급)을 한데 모아 액수를 바둑 재배분하는 것을 금지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법 제6조의27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성과급을 모았다가 재배분할 경우 해당 액수를 징수하고 최대 1년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지방·국가·법원 공무원들은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이 조항이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현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는 성과급 재분배가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의도가 있는 행위”라며 “이를 금지해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 조직을 만드는 공익은 중대하지만, 재분배로 얻는 이익은 이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시장 前비서관 뇌물 혐의 구속

장흥군 비서실장도

광주시 납품 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윤장현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진웅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뇌물을 받고 광주시 관급자재 납품 계약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로 김도(57) 광주시 전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김 전 비서관을 체포하고 이튿날인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비

서관으로 있으면서 친척이 일하는 특정 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담당 부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16개 업체가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독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시장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아 납품 계약 권한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김 전 비서관은 윤 시장의 인척으로 광주시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광주시 김도(63) 전 정책자문관의 동생이다.

장흥군 비서실장도 이날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호기심에…소화설비 버튼 눌러 아수라장 된 병원 7명 부상



○~60대 병원 주차 관리원이 호기심 삼아 소화설비 버튼을 눌러 화재 진압용 이산화탄소가 지하주차장에 쏟아지는 바람에 병원직원 등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평온했던 병원이 일순간 비상상황에 돌입.

○~4일 광주서부경찰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광주시 서구 광천동 모 병원 소속 주차관리원 정모(67)씨가 지하에 설치된 소화설비 버튼을 누르면서 순

식간에 이산화탄소 1500ℓ가 지하 주차장에 쏟아져 정씨를 포함한 직원과 방문객 등 7명이 부상을 입고 119와 경찰 40여명이 출동하는 등 아찔한 순간이 벌어졌다.

○~이산화탄소가 쏟아지면서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고 병실로 옮겨진 부상자들은 간단한 치료 후 건강을 되찾았는데, 경찰은 소동을 일으킨 정씨를 조사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김철호기자 khk@kwangju.co.kr

장성 산란계 농장도…전남 4번째 AI 확진

이번주 농장간 감염 확산 분수령…전남도 방역 총력전

장성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전남도는 농장 간 AI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에 힘쓰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1일 닭 20마리가 폐사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된 장성군 남면 산란계 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H5N6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했다.

전남도는 동물위생시험소 시료 검사에서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 2000마리를 이미 예방적 살처분했다. 전남에서는 올해 들어 농장 기준으로 네 번째 고병원성 AI 확진이다.

지난달 16일 해남 산란계 농장, 지난달 18일 무안 오리 농장, 지난달 28일 나주 씨오리 농장에서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축산당국은 닭 4만2000마리, 오리 5만9000마리 등 10만1000마리를 살처분했다. 강진만 고니 사체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고병원성 판정이 나오기도 했다.

전남도는 이번 주가 AI 확산세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철새를 매개로 한 것으로 추정된 감염이 주를 이뤘지만, 국내 최대 오리 산지인 나주에서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농장 간 감염이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전남에서는 1개 시·군에서 AI가 중복 발생한 사례는 없지만, 농장 간 2차 전파가 시작된다면 확산은 견잡을 수 없게 된다.

특히 나주시 공산면 발생 농장에서는 전남 44곳으로 세게 오리가 분양된 것으로 알려져 추가 감염 우려가 크다. 이 농장 주변은 3km 이내에서 7 농가·79만 마리(닭 78만 마리, 오리 1만 마리), 3~10km에는 75 농가·284만 마리(닭 227만 마리, 오리 57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키우는 밀집 사육지다.

전남도는 이들 농장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중개
법인

한국토지경매

☎ 1522·3396
대표

경매 골프장

감정가 39억8천만, 최저가 27억8천만
광양시 봉강면 / 9홀 / 대지 9673평, 건물 232평

경매 상가건물

감정가 12억2천만, 최저가 12억2천만
무안군 삼향읍 / 대지 126평, 건물 289평 / 남악신도시내 위치

매매 오피스텔

매매가 42억
조선대공대입구 / 10층 / 신축 / 대지 183평, 건물 600평

매매 상가건물

매매가 15억
첨단 / 3층 / 대지 198평, 건물 450평

교육 연구 시설 순천시 낙안면 / 대지 3987평 건물 336평 / 1종일반주거지역 / 아곡마을 내 위치 / 수목 식재	감정가 16억 2천만, 최저가 16억 2천만
가스충전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접 / 자동차차기 / 3기 6구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7억 1천만
숙박시설 북구 흥흥동 / 총 8층 / 대지 91평 건물 340평 / 일반상업지역 / 코너 / 광주역 앞 위치	감정가 9억 4천만, 최저가 6억 6천만
수익형 상가 빌딩 남구 주월동 / 총 4층 / 대지 71평 건물 177평 / 4층 안접 / 1종일반주거지역 / 코너 / 10m도로접	감정가 4억 5천만, 최저가 4억 5천만

상가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영업중	매매가 17억
전원주택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매매가 13억
연립주택 부지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 담 1098평 /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 주변 명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매매가 12억
숙박시설 부지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매매가 8억 5천만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7구 / 공실없음	매매가 5억 5천만
연립주택 및 빌라 부지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 전 1513평 / 1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 / 월출산 조망	매매가 4억 3천만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6772-1114 김 주 성